

## 요한계시록 6:8에 나오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에 관한 연구

이달\*

### 1. 들어가는 말

성경 번역은 원문을 얼마나 충실히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번역 이론에는 문자 그대로 번역할 수 있을수록 좋은 번역이라는 견해와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견해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원칙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론적으로 종합이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본문을 번역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이 글에서는 요한계시록 6:8에 등장하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6:8을 번역할 때 신약성서의 주요 상호텍스트(intertext)<sup>2)</sup>가 되고 있는 구약성서와 공관복음서의 종말 강화를 고려하여야

\* 한남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2013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1) 최근에 「성경원문연구」에서 번역의 이론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왕대일은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71-75에서 내용의 동등성 원칙에 따른 번역을 할 경우 주석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크리스프는 “현대 성서번역을 위한 도전들”,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197-201에서 문자역을 뛰어넘기 위하여 의사소통이론에 입각한 기능적 동등성을 소개하고 있다. 조경철은 “골로새서 1:24과 2:18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3 (2008), 122-123에서 번역자의 해석학적 차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형식적 동등성의 직역이 최선의 번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충연도 “갈라디아서 1:1-2:10의 한국어 번역 연구-형식 일치 번역을 지향할 때의 문제 구절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6에서 형식 일치의 번역을 택한 이유를 밝히면서, “다소 한국어로의 의미 전달이 불편하더라도 저자인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원래의 의미와 문장의 문법적 형식, 문장 배열 등을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원문에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34-138에서 밝혔듯이, 바람직한 번역은 문맥과 일관성, 문화와 의미를 고려한 의미가 통하는 번역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 2) 「성경원문연구」에서 상호텍스트/상호본문(intertext)의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는 Philip Towner, “Intertextuality: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0 (2007), 104-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성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sup>3)</sup>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의 출처가 되는 BHS 본문과 그것을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LXX의 용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2. θάνατος의 일반적인 의미

TDNT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θάνατος(*thanatos*)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고 있다.<sup>4)</sup> 첫째, θάνατος는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운명이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멸망 받을 것이다(고전 15:26; 계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육신에 속한 자를 지배한다(롬 8:6). 둘째, 죽음은 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이다. 죽음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다.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죽음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된다. 셋째,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것을 둘째 사망(계 20:6, 14)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 놓인다. 넷째, 과멸적인 권세로서의 죽음은 마지막 멸망 때까지 유보되지만, 계시를 떠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인해 죽음은 극복되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계 1:18). 모두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BDAG는 θάνατος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TDNT와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sup>5)</sup> 첫째, 육체적 생명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사, 징벌로 인

108과 강신욱, “요한계시록의 정관사 번역 문제-요한계시록 12:14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2(2008), 140-143을 들 수 있다.

3) 스티브 모이스(Steve Moyise)는 요한계시록의 상호텍스트(intertext)적 성격에 관해서 논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구약성서를 200번이 넘게 사용하였지만(인용과 인용을 포함하여) 창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책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37-138을 참고하라. 이에 비해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묵시적인 전통이라는 맥락 속에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을 계승한다고 보고 있다. 그의 책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 & T. Clark, 1993), 90-91을 참고하라.

4)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65), 14-21.

5) Walter Bauer, Frederick William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443.

한 죽음, 죽음의 위협, 일반적인 죽음의 방식, 의인화된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둘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와 대조되어 초월적으로 이해된 죽음을 의미한다.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특별한 방식의 죽음을 의미한다. 치명적 질병, 페스트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BDAG에서 제시한 세 번째 의미는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이란 단어가 아닌 다른 번역 용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θάνατος가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 즉 일반적인 의미와 특수한 의미를 구별하여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 3. 문제 제기

요한계시록 6:8에 등장하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은 한편으로 자명해 보인다. θάνατος의 의미가 자명하고, 그것의 여격 명사의 의미 또한 자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6:8에서 ἐν θανάτῳ가 나타나는 문맥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한계시록 6:8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위 세 재앙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일곱 인 중 넷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 때에 요한은 청황색 말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청황색(χλωρός)은 원래는 녹색을 띤 풀 색깔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아프거나 죽은 사람의 색깔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청황색은 사망의 색깔인 썩이다. 그래서 말 위에 탄 자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지옥’(하데스, 스올)이 ‘사망’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sup>6)</sup> ‘사망’과 ‘지옥’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호 13:14 참조). 그들(‘사망’과 ‘지옥’)은 땅의 주민 사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본문에서 ‘사망’과 ‘지옥’은 의인화되어 있다. θάνατος가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도 나온다. 1:18; 6:8; 20:13, 14의 경우가 그것이다. 다만 1:18의 경우는 의문이다. 다른 세 곳에서는 모두 주격 관사가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해, 1:18에서는 속격 관사가 ‘열쇠’와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 곳 모두 ‘사망’과 ‘지옥’이 같은 순서로 함께 등

6) 앞에 언급된 세 말과 마찬가지로, 청황색 말 위에 탄 기수는 ‘단수’(ὁ καθήμενος)로 표현되어 있지만, 땅의 주민 사분의 일을 멸할 권세를 받은 존재는 ‘복수’(αὐτοίς)로 표현되어 있다. ‘사망’의 주도하에 “지옥”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망’이 죽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인 데 비해, ‘지옥’은 그 뒤처리를 담당한다. ‘지옥’(하데스)는 말에 타지 못하고 말에 탄 기수인 ‘사망’을 뒤따르면서 역병으로 죽은 자들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과 지옥이 사람들을 죽이는 네 가지 수단이나 원인으로서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을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기근으로 굶어죽게 되고, 들짐승에 물려 죽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죽음’으로써 죽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헬라어로는 청황색 말 위에 탄 기수인 ‘사망’과 여기 언급된 ‘죽음’은 같은 단어인 θάνατος이다.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말 여러 번역본에서 ‘사망’과 ‘죽음’으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긴 했지만 문맥상 어색하고 의미가 불분명하게 된 것만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ἐν θανάτῳ를 ‘죽음으로써’로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가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되고 말았다. 땅의 주민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를 부여받은 대상은 ‘사망’과 ‘지옥’이다. ‘사망’과 ‘지옥’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죽일’ 권세를 받았다. 여기에서 ‘죽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ἀποκτείναι로서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죽일 권세의 수단으로서 언급된 ‘칼’과 ‘기근’과 ‘들짐승’은 모두 죽이는 수단이나 원인으로서는 작용한다. 그러나 ‘죽음’을 죽음의 수단이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여기에서 ‘죽음’이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나 결과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논지는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가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통하는 명확한 번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요한계시록을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할 주석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브래처(Bratcher)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7)</sup>

#### 4. 다른 번역본들에서의 해결책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

7) 이에 관한 내용은 Robert G. Bratcher, *A Translator's Guide to the Revelation to John* (London; New York;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1984), 57과 Robert G. Bratcher and Howard A. Hatton, *A Handbook on the Revelation to Joh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3), 114를 참고하라.

지 살펴보자. 형식적 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을 대표하는 영어 번역과 우리말 번역을 균형 있게 선택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 4.1. 영어 번역(KJV, RSV, TEV, NIV)

KJV: “And I looked, and behold a pale horse: and his name that sat on him was Death, and Hell followed with him. And power was given unto them over the fourth part of the earth, to kill with sword, and with hunger, and with death, and with the beasts of the earth.”

RSV: “And I saw, and behold, a pale horse, and its rider's name was Death, and Hades followed him; and they were given power over a fourth of the earth, to kill with sword and with famine and with pestilence and by wild beasts of the earth.”

TEV: “I looked, and there was a pale-colored horse. Its rider was named Death, and Hades followed close behind. They were given authority over one fourth of the earth, to kill by means of war, famine, disease, and wild animals.”

NIV: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pale horse! Its rider was named Death, and Hades was following close behind him. They were given power over a fourth of the earth to kill by sword, famine and plague, and by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영어 번역본들이 ἐν θανάτῳ를 번역한 것을 보면 KJV만 ‘with death’로 번역하고 있고, 다른 모든 번역들은 KJV과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with pestilence’(RSV), ‘by means of disease’(TEV), ‘by plague’(NIV). 대부분의 번역이 ἐν θανάτῳ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형식적 일치보다는 내용의 동등성을 번역 원칙으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이들 번역에서는 의미가 통한다는 것이다.

#### 4.2. 우리말 번역(『개정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개역개정』: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새번역』: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써 사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개정』: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영어 번역본과 달리 우리말 번역본들은 한결같이 ἐν θανάτῳ를 ‘사망으로써/죽음으로써(을 가지고)’로 번역하고 있다. ‘사망’과 ‘죽음’이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개역개정』의 경우, 청황색 말을 탄 기수의 이름(‘사망’)과 똑같아서 더욱 혼동하도록 만들고 있다.

## 5. 내증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려고 한다. 먼저 요한계시록 안에서 유사한 용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서, 특히 칠십인역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앙의 목록이 나타나는 구약성서와 공관복음서의 상호텍스트(intertext)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와 유사한 용례는 없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훌륭한 내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θάνατος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예: pestilence)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sup>8)</sup>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3과 18:8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sup>9)</sup> 그러면 요한계시록 6:8에 나오는 ἐν θανάτῳ의 번역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8) θάνατος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W. F. Moulton, A. S. Geden and H. K. Moulton, *Concordance to the Greek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78), 437을 참고할 수 있다. 로버트 마운스(Robert H. Mounce)는 계 6:8의 ἐν θανάτῳ가 겔 14:21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로서, 다른 세 기수의 재앙도 모두 죽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책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8), 145의 각주를 보라.

9) 예를 들어, Stephen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155.

2:23과 18:8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로, 요한계시록 2:23의 헬라어 원문은 ἀποκτείνῳ ἐν θανάτῳ라고 되어 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이를 살리지 못하고 각각 ‘죽게 하겠다’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데 비해, 『개역개정』은 ‘사망으로…죽이리니’라고 번역함으로써 ἐν θανάτῳ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18:8의 헬라어 원문은 θάνατος καὶ πένθος καὶ λιμός로 되어 있다. 『새번역』과 『개역개정』은 각각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비해, 『공동개정』은 ‘질병과 슬픔과 굶주림’으로 번역함으로써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θάνατος라는 같은 단어를 동일한 번역본조차도 일관성이 없이 번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어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영어 번역본들은 요한계시록 2:23을 번역하면서 각각 ‘kill … with death’(KJV<sup>10</sup>), ‘strike … dead’(RSV<sup>11</sup>), ‘even kill’(TEV<sup>12</sup>), ‘strike … dead’(NIV<sup>13</sup>)로 번역하고 있다. 모두 ἐν θανάτῳ에 대한 번역의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번역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8:8에 대한 번역을 보면, ‘death, mourning, and famine’(KJV<sup>14</sup>와 NIV<sup>15</sup>), ‘pestilence and mourning and famine’(RSV<sup>16</sup>), ‘sorrow, hunger, and death’(TEV<sup>17</sup>)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RSV만이 θάνατος를 번역하면서 문제점을 고민하여 번역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TEV는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고 있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6:8(ἐν θανάτῳ)을 번역한 것과 요한계시록 2:23(ἐν θανάτῳ)과

- 
- 10) KJV: “And I will kill her children with death; and all the churches shall know that I am he which searcheth the reins and hearts: and I will give unto every one of you according to your works.”
  - 11) RSV: “and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And all the churches sha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mind and heart, and I will give to each of you as your works deserve.”
  - 12) TEV: “I will even kill her followers. Then all the churches will see that I know everyone’s thoughts and feelings. I will treat each of you as you deserve.”
  - 13) NIV: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Then all the churches wi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hearts and minds, and I will repay each of you according to your deeds.”
  - 14) KJV: “Therefore shall her plagues come in one day, death, and mourning, and famine; and she shall be utterly burned with fire: for strong is the Lord God who judgeth her.”
  - 15) NIV: “Therefore in one day her plagues will overtake her: death, mourning and famine. She will be consumed by fire, for mighty is the Lord God who judges her.”
  - 16) RSV: “so shall her plagues come in a single day, pestilence and mourning and famine, and she shall be burned with fire; for mighty is the Lord God who judges her.”
  - 17) TEV: “And so, in a single day she will suffer the pain of sorrow, hunger, and death. Fire will destroy her dead body, because her judge is the powerful Lord God.”

18:8(θάνατος)의 번역이 우리말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 6:8	계 2:23	계 18:8
『개역개정』	사망으로써	사망으로 ... 죽이리니	사망
『새번역』	죽음으로써	죽게 하겠다	죽음
『공동개정』	죽음을 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질병
KJV	with death	kill...with death	death
RSV	with pestilence	strike...dead	pestilence
TEV	by means of disease	even kill	death
NIV	by plague	strike...dead	death

이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요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번역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θάνατος(주격과 여격 모두)의 번역에 있어서 ‘죽음/사망/death’으로 번역한 것과 이와 다른 단어(질병/pestilence/disease/plague)로 번역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형식적 일치’의 번역’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를 ‘내용 동등성의 번역’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번역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번역할 때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동일 번역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본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사망/죽음’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만, 『공동개정』은 ‘죽음’과 ‘질병’(18:8)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영어 번역본의 경우, KJV와 TEV는 ‘death’의 의미로 일관성을 보여주지만, RSV는 ‘pestilence’와 ‘death’(2:23)의 의미로, NIV는 ‘plague’(6:8)와 ‘death’의 의미로 나뉘고 있다. 물론 일관성이 반드시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번역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ἐν θανάτῳ(6:8과 2:23)가 내포하고 있는 번역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역개정』은 ἐν θανάτῳ를 ‘사망으로써’(6:8)와 ‘사망으로’(2:23)라고 번역함으로써, 일관성을 보여주는 하지만, 의미가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번역』은 ἐν θανάτῳ를 ‘죽

음으로써(6:8)와 ‘죽게 하겠다’(2:23)로 번역함으로써 일관성을 잃고 있다. 특히 2:23의 경우, 타동사(ἀποκτείνω)와 여격 명사(ἐν θανάτῳ)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고 하나로 뭉뚱그려버리고 말았다. 『공동개정』도 『새번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18:8에서 새로운 번역(‘질병’)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동개정』이 요한계시록 18:8의 θάνατος를 ‘질병’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다. 영어 번역본과 달리 우리말 번역에서 문자적인 번역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영어 번역본의 경우, KJV는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번역(‘death’)을 하고 있지만, RSV, TEV, 그리고 NIV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2:23을 번역하면서 영어 번역 모두 우리말 번역본(『새번역』과 『공동개정』)과 같이 타동사(ἀποκτείνω)와 여격 명사(ἐν θανάτῳ)를 뭉뚱그려서 번역하고 있다. 2:23에 대한 모든 번역본을 살펴볼 때, 비록 잘못된 번역이지만 여격 명사(ἐν θανάτῳ)를 살려서 번역하려고 한 것은 『개역개정』뿐이다.

일관성이 없고 또한 잘못된 번역을 하게 된 이유는 ἐν θανάτῳ가 가진 번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본다. 이는 결국 특별한 문맥에서 사용된 θάνατος의 의미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여기에서 특별한 문맥이란 두 가지 경우인데, ‘죽이다’와 같은 타동사와 ἐν θανάτῳ가 결합된 문구를 가리키는 것과 종말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보다 넓은 문맥에서 재앙의 목록에 등장하는 θάνατος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서 θάνατος/ἐν θανάτῳ는 일반적인 의미(‘죽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θάνατος는 일반적인 죽음을 뜻하는 의미 범주와 **질병**(18)을 뜻하는 의미 범주로 나누어지고 있다.

## 6. 외증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말의 재앙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인용이 구약성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는 것이다. 앞에서 θάνατος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증거가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서(칠십

18) דָּבַר(deber)의 번역의 하나로서 제시된 질병은 따옴표를 하여 ‘질병’으로, θάνατος가 일반적인 의미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범주로서 사용이 될 때는 밑줄을 그어 **질병**으로 표기하여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다.

인역)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칠십인역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논의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θάνατος가 **질병**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칠십인역 외에도 그 당시 유대 묵시문학이나 그리스-로마의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sup>19)</sup> 칠십인역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재앙 목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관복음서의 종말 강화를 간단하게 취급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우리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1. 칠십인역의 용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성서는 히브리어 원전에서부터 온 것도 있고, 칠십인역에서부터 온 것도 있다.<sup>20)</sup> 우리는 헬라어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칠십인역<sup>21)</sup>에서 θάνατος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BHS에 나오는 דִּבְרֵי(*deber*; 대표적인 의미가 pestilence/disease/epidemic임)는 칠십인역에서 다수가 θάνατος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문을 반영하고 있는 칠십인역의 θάνατος는 일반적인 의미(‘죽음’)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칠십인역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을 참고하려고 한다.

19) 데이비드 언(David E. Aune)은 구약성서 이외의 곳에서 θάνατος가 **질병**의 의미로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그의 주석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8), 402-403에서 『솔로몬의 시편』 13:2-3; 15:7; 『시빌의 신탁』 3.316-317, 335; Dio Cassius의 유대전쟁사에 관한 기록 69.1-2; Dio Chrysostom *Or.* 38.20; Hierocles the Stoic의 *On Duties* 1.3.54; Hesiod의 *Works and Days* 243; Herodotus 7.171; 8.115; Thucydides 1.23.3을 참고하라.

20) R. H. Charles, *The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85), lxii-lxv. 비얼(Beale)은 요한계시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하거나 참고하고 있는 구약성서가 칠십인역(H. B. Swete의 주장)보다는 히브리어 구약성서(R. H. Charles의 주장)라는 주장에 기우는 편이지만, 칠십인역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G. K. Beale,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JSNT Supplement Series 16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61-62.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구약성서 전통을 깊이 연구한 얀 페케스(Jan Fekkes)는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4), 17에서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어 구약성서는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인용한 데 비해서, 헬라어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때로는 문자 그대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1) 이 글에서 참고한 칠십인역은 Alfred Rahlfs, ed., *Septuaginta*, vol. I & II (Stuttgart: Deutsche Biblestiftung Stuttgart, 1935)이다.

	BHS	LXX	『개역개정』	『새번역』	RSV	TEV
출 5:3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질병	pestilence	disease
출 9:3	דָּבָר	θάνατος	돌림병	병	plague	disease
출 9:15	דָּבָר	θάνατος	돌림병	질병	pestilence	disease
레 26:25	דָּבָר	θάνατος	염병	재앙	pestilence	disease
민 14:12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epidemic
신 28:21	דָּבָר	θάνατος	염병	전염병	pestilence	disease
삼하 24:13, 15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epidemic
왕상 8:37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역병	pestilence	epidemic
대상 21:12, 14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epidemic
대하 6:28	דָּבָר	θάνατος	재앙	역병	pestilence	epidemic
대하 7:13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염병	pestilence	epidemic
대하 20:9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epidemic
시 78:50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염병	plague	plague
시 91:3, 6	דָּבָר	λογος, πραγμα	전염병	병, 염병	pestilence	disease, plague
렘 14:12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염병	pestilence	disease
겔 5:12 <sup>22)</sup>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sickness
겔 14:21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disease
호 13:14	דָּבָר	θάνατος	재앙	재앙	plague	plague
암 4:10	דָּבָר	θάνατος	전염병	전염병	pestilence	plague
합 3:5	דָּבָר	θάνατος	역병	질병	pestilence	disease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sup>23)</sup>, 몇 가지 흥미로운 번역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BHS에서 דָּבָר로 기록된 것은 LXX에서 거의 모두 θάνατος로 번역되어 있다.<sup>24)</sup> 그렇다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מוֹת(*mavet*)도

22) BHS에는 심판의 징벌이 삼분의 일씩(전염병과 기근, 칼, 사방으로 흩어버림) 다르게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LXX에서는 넷(전염병, 기근, 사방으로 흩어버림, 칼)으로 나누고 있다.

23) דָּבָר가 나오는 구약성서의 구절은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66), 184을 참고하였다. BHS에서 דָּבָר가 나오는 구절은 더 많이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4) 우리가 취급한 표 안에서는 한 가지 예외가 시 91:3, 6의 경우인데, λογος와 πραγμα라는 단

θάνατος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호 13:14 참고).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LXX가 נִבְּרָה를 상당히 일관되게 θάνατος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우리말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은 일관된 번역을 보여주지 않는다. 지면 관계로 몇 개의 번역본만을 참고하였지만,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개역개정』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개의 단어(‘전염병, 돌립병, 염병, 재앙, 역병’)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염병’이 주를 이룬다. 『새번역』 역시 여러 개의 단어(‘질병, 병, 재앙, 전염병, 역병, 염병’)로 번역하고 있지만, 추가 되는 번역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빈도수를 보인다. ‘전염병’이 약간 우세를 보이는 정도다. RSV의 경우를 보면, ‘pestilence’와 ‘plague’가 번역어로 채택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pestilence가 많다. TEV의 경우는 RSV보다는 더 많은 번역어(‘disease, epidemic, plague, sickness’)가 사용되고 있지만, disease와 epidemic이 양분하고 있는 모습이다.<sup>25)</sup>

셋째, 우리말 번역본에 비해 영어 번역본은 서로 배타적인 번역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RSV는 TEV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disease와 epidemic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반대로 TEV는 RSV가 중요하게 채택하고 있는 pestilence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어 번역본에 비해서 우리말 번역본이 더 다양한 번역어를 채택하고 있다. 형식적 일치율을 보이는 번역본(『개역개정』, RSV)보다 내용의 동등성을 중시하거나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번역본(『새번역』, TEV)이 더 다양한 번역어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TEV가 pestilence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더 널리 통용되는 번역어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에 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다.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을 주는 경우이다. 열왕기상 8:37(=대하 6:28)과 하박국 3:5가 여기에 해당된다. 열왕기상 8:37은 נִבְּרָה를 ‘재앙’(『개역개정』과 ‘역병’(『새번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37절 후반절에 ‘질병’(『개역개정』과 ‘전염병’(『새번역』이라는 번역이 나온다. 이것은 히브리어 מַחֲלָה(mahala)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하박국 3:5는 נִבְּרָה를 ‘질병’(『개역개정』, 『새번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취급하지 않은 구절에서 이와 같은 예외는 더 나올 수 있지만, 대다수는 נִבְּרָה를 θάνατος로 번역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5) 삼하 24:13, 15와 대상 21:12, 14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며 왕상 8:37과 대하 6:28이 동일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빈도수를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데, 바로 뒤에 ‘불덩이’(『개역개정』와 ‘전염병’(『새번역』이 나온다. 이것은 히브리어 ‘화염’을 뜻하는 *רֶשֶׁף* (*reshep*)를 번역한 것이다. 이처럼 다른 단어이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의미 경계의 구분 없이 번역어를 채택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이것은 예언서가 히브리 시적인 평행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단어 간에 차별이 없이 번역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번역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서로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증과 외증을 통해 살펴본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LXX는 *pestilence, disease, epidemic*의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ῥῆγ*를 *θάνατος*로 상당히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말 번역본들은 요한계시록 6:8의 *θάνατος*를 일반적인 의미로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 6.2. 재앙의 목록

신구약성서에는 사람들이 종말적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재앙들은 목록의 형태를 보이며 열거되는 경우가 많다. 구약성서에서 이러한 목록은 예레미아서와 에스겔서에서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재앙 목록은 세 가지(칼/전쟁, 기근, 전염병)로 나타난다(렘 14:12; 21:9; 24:10; 27:8, 13; 29:17-18; 32:24, 36; 38:2; 42:17, 22; 44:13; 겔 6:11; 12:16).<sup>26)</sup>

요한계시록 6:8에 기록된 네 가지(칼, 기근, 죽음, 들짐승)<sup>27)</sup> 재앙 목록은 넓게는 레 26:14-26; 렘 14:12; 겔 5:12; 겔 14:21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비얼(Beale)은 레위기 26:14-26(폐병과 열병, 기근, 들짐승, 전쟁, 염병); 에스겔 14:21(전쟁,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요한계시록 6:1-8의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sup>28)</sup> 레위기는 재앙의 종류를 길게 설명하면서 나열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언(Aune)이 지적한 대로, 직접적인 영향은 전형적인 세 가지 재앙 목록에 한 가지(사나운 짐승/들짐승)를 추가하고 있는 에스겔 14:21에서 받았을 가능

26) 이달, 『요한계시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136.

27) 계 6:8에서 네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마도 땅의 주민들 ‘사분의 일’이 언급되었고 또한 처음 네 인이 네 마리 말의 환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넷’이라는 숫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9), 382.

성이 높다.<sup>29)</sup> 에스겔 5:12도 주목의 대상인데, BHS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재앙으로 기록된 것을 칠십인역에서 네 가지 재앙으로 구분하여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관련된 구약성서의 목록 내용을 일별해 보기로 하자(구두점 필자 추가).

레 26:14-26	내용 중에 “폐병과 열병, 기근, 들짐승, 전쟁, <b>염병</b> ”이 언급되어 있음.
렘 14:12b	“칼과 기근과 <b>전염병</b> 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겔 5:12	“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b>전염병</b> 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겔 14:2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b>전염병</b> 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종말적 재앙의 목록이 언급된 문맥에서 사용된 ‘염병/전염병’은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질병**의 의미 범주에 해당된다. 또한 이곳에 사용된 단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BHS에 **꺈꺈**로 기록되고 있고 LXX에는 대부분 **θάνατος**로 번역되어 있다.

### 6.3. 공관복음서의 종말 강화

여기에서 한 가지 증거를 덧붙일 수 있겠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재앙이 공관복음서의 종말 강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일곱 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관해 찰스(Charles)는 일찍이 요한계시록의 인의 재앙 목록에 나오는 재앙의 순서와 내용이 누가복음의 종말 징조와 가장 비슷하다고 논증한 바 있다.<sup>30)</sup> 설명을 덧붙이자면, 누가복음 21:9-12, 25-26은 ‘전쟁/국제분쟁/지진/기근/전염병/박해/하늘의 징조’의 순서와 내용

29) David E. Aun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8), 402.

30) R. H. Char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85), 158-159.

을 보여주는데, 이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6:2-17도 ‘전쟁/국제분쟁/기근/전염병/박해/지진과 하늘의 징조’의 순서와 내용을 보여준다. 그런데 재앙 목록을 열거하는 중에 누가복음 21:11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종말 징조와 다르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전염병’을 이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21:11에 나오는 ‘전염병’은 헬라어 λοιμός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4:7과 사도행전 24:5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일부 사본에만 나오는 것이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sup>31)</sup> 사도행전의 경우는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다. 더들로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sup>32)</sup> 비록 아이러니로 사용되었지만 ‘전염병’이 가진 위험성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칠십인역 구약성서에서 λοιμός는 여러 군데(예: 왕상 8:37; 겔 36:29) 나온다.<sup>33)</sup> 이처럼 λοιμός는 ‘전염병/역병/온역’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8에는 ἐν λοιμῳ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ἐν θανάτῳ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가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가 아닌 **질병**, 즉 ‘전염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번역 제안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가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질병**의 의미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이를 위해 첫째로, 이전의 다른 번역을 비평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앞에서 θάνατος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언급할 때 θάνατος가 일반적인 죽음과 특별한 **질병**을 다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단어로 이미 기록된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문맥

31) George V. Wigram, *The Englishm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464. 그러나 마 24:7에 나오는 λοιμοί는 일부 사본(C, W, P<sup>3</sup>, Θ 등)에만 나오며, 아마 눅 21:11과 조화시키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Donald A. Hagner, *Matthew 14-28*, Word Biblical Commentary 33B (Dallas: Word Books, 1995), 689를 참조하라.

32) 이달, 『사도행전』(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336 참조.

33) Edwin Hatch and Henry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vol. II. K-Ω (Athens: Beneficial Book Publishers, 1993), 887

에 따라 이해하면 되지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우리말 번역에서 한 가지 번역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요한계시록 6:8에 두 번 나오는 θάνατος/ἐν θανάτῳ를 한 가지 번역어로 고집스럽게 번역하게 되면, 기존의 우리말 번역처럼 ‘죽음’과 ‘죽음으로써’와 같이 번역하거나 ‘전염병’과 ‘전염병으로써’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그 안에 ‘전염병’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번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 7.1. 영어 번역본의 번역어에 대한 평가

영어 번역본들은 요한계시록의 관련 구절과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에 나오는 θάνατος를 번역하면서 ‘pestilence/disease/plague/epidemic’ 등 다양한 번역의 용례들을 보여주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pestilence’는 ‘전염병, 역병, (악성) 유행병’이라는 의미이며, 페스트가 이 단어의 기원이 됨을 보여준다.<sup>34)</sup> ‘disease’는 사람과 동물이 앓게 되는 ‘병, 질병, 질환’의 의미를 가지며, 정신적인 질병과 신체적인 질병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sup>35)</sup> ‘plague’는 ‘역병, 전염병, 악성 전염병’이라는 의미와 ‘(천벌로 내리는) 불행, 천재, 재난, 재앙, 저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페스트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sup>36)</sup> ‘epidemic’은 전염병으로 인한 ‘유행병’을 가리킨다.<sup>37)</sup>

이 중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RSV가 채택한 pestilence이다. 왜냐하면 RSV는 압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V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RSV가 선호한 pestilence를 TEV가 배제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타도 있겠지만, 페스트가 더 이상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번역어를 찾는 과정에서 보다 일반적인 epidemic/disease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괜찮은 번역어라도 적절성(relevance)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disease는 어떠할까? 이 단어는 가축이나 사람에게 해당되는 ‘병/질병’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종말적인 재앙을 표현해 내기에는 약한 느낌을 준다. 앞의 표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곳에서는 **מָאֵר כִּבְדָּר דְּבַר** (*deber kabed meod*)라고 표현하였다(출 9:3). 이는 ‘심히 무서운’(מָאֵר כִּבְדָּר)이라는 수식어

34) 윤평어문연구소 편, 『영한대사전』(서울: 금성출판사, 1992), 2429.

35) Ibid., 924.

36) Ibid., 2480.

37) Ibid., 1085.

로 ‘병’(גבר)을 수식하는 방식을 통해 보완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새번역』의 경우). 그러나 항상 이와 같은 수식어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

plague의 경우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plague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9:18, 20; 11:6; 13:14; 15:1, 6, 8; 16:9, 21; 18:4, 8; 21:9; 22:18)<sup>38</sup>로서 주로 일곱 대접의 재앙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θάνατος를 πληγη(plēgē)와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lague가 페스트나 전염병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보다 광범한 의미망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일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영어 번역본에서 가장 무게를 둘 수 있는 단어는 epidemic<sup>39</sup>이다. 이 단어는 ‘유행병/전염병’이라는 일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epidemic(에이즈, 사스, AI 등)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적절한 의미로 다가오는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종말적 재앙의 느낌도 가지고 있다.

## 7.2. 우리말 번역본의 번역어에 대한 평가

우리말 번역본들은 요한계시록 18:8에서 『공동개정』이 θάνατος를 ‘질병’으로 번역한 것을 제외한다면, 절대 다수가 ‘죽음/사망’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구약성서의 사례까지 감안하면 영어 번역본들보다 많은 번역 용어(‘병, 재앙, 염병, 역병, 돌림병, 질병, 전염병’)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다. ‘병’은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0</sup>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간질병, 심장병과 같이) 질병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질병’은 ‘몸의 온갖 병’이라고 정의하면서, ‘우환/질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sup>41</sup> ‘재앙’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38) plague의 의미와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예는 Walter Bauer, Frederick William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825를 참고할 수 있다.

39) epidemic의 헬라어 어원은 ‘επι(epi; 위에)+δημος(dēmos; 사람)’로서 사람들에게 갑자기 덮치는 종말론적 재앙이라는 점을 나타내 준다.

40)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서울: 두산동아, 1999), 2703.

41) Ibid., 5836.

사고”로 정의한다.<sup>42)</sup> ‘염병’은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면서, ‘전염병’의 의미로도 사용한다고 말한다.<sup>43)</sup> ‘역병’에 대해서는 “역병균의 공기 전염으로 생기는 농작물의 유행병”의 의미와 “대체로 급성이며 전신 증상을 나타내어 집단적으로 생기는 악성 전염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44)</sup> ‘돌림병’은 유행병에 대한 우리말로서 “어떤 지역에 널리 퍼져 여러 사람이 잇따라 돌아가며 옮겨 앓는 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5)</sup>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스피로헤타, 진균, 원충 따위의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겨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병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염병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sup>46)</sup> 이들 개념이 가리키는 의미장(meaning field)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재앙>병>질병>역병=돌림병=전염병>염병

위 단어들의 의미장을 토대로 말해 보면, ‘재앙’은 너무 범위가 커서 **질병**의 개념을 표현해 주지 못한다. ‘병’이 정신적인 질환까지 포함하고, ‘질병’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질환을 보다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때, 둘의 의미 경계는 나눌 수 있지만 두 용어가 어떤 질환을 특정하여 가리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말적 재앙으로서의 심각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어로서의 적절성이 떨어진다. ‘염병’은 전염병의 한 종류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남은 명칭들인 ‘역병/돌림병/전염병’은 모두 같은 의미장 안에 놓여 있다고 볼 때, 어느 명칭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널리 통용되는가의 기준에 더 잘 맞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역병’은 ‘역학 조사’와 같은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의학 전문용어로서, 다른 용어(예로 ‘전염병’)보다 옛스러운 느낌이 난다. ‘돌림병’은 우리말로서 좋은 용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병을 유행시킨다는 개념도 잘 표현해 준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법정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염병’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요즘은 전염병은 쉽게 치료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종말론적 재앙으로서의 치명성을 잘 드러내지 못할

42) Ibid., 5259.

43) Ibid., 4392.

44) Ibid., 4329.

45) Ibid., 4809.

46) Ibid., 5350.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새로운 번역 용어를 만드는 것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서 시대의 질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다양한 구약성서 및 신약성서의 문맥에서 사용된 질병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과욕에 불과할 것이다.

### 7.3.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를 번역하는 용어로서 유념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θάνατος는 특별한 문맥과 구약성서 intertext와의 연관성에서 볼 때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질병**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θάνατος로 번역된 דִּבְרֵי의 배경에서 볼 때, 동일한 용어는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번역 용어의 선택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되고 널리 통용되느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요한계시록 6:8의 ἐν θανάτῳ는 ‘전염병으로써’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 6:8의 후반부(새번역에 근거하자면)는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써 사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어>(Keywords)

요한계시록 6:8, 싸나토스, 데베르, 죽음, 질병, 전염병.

Revelation 6:8, θάνατος(*thanatos*), דִּבְרֵי(*deber*), death, disease, pestilence/epidemic.

(투고 일자: 2014년 2월 10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8일)

<참고문헌> (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3.
-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9.
- 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5.
-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Bible Publishers, 2005.
-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 강신욱, “요한계시록의 정관사 번역 문제-요한계시록 12:14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139-160.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김충연, “갈라디아서 1:1-2:10의 한국어 번역 연구-형식 일치 번역을 지향할 때의 문제 구절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5-133.
- 운평어문연구소 편, 『영한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2.
-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2-78.
- 이달, 『요한계시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이달, “요한계시록 14:6에 나타난 *E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υ*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34-157.
- 이달,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조경철, “골로새서 1:24와 2:18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3 (2008), 122-145.
- 크리스프, 사이먼, “현대 성서번역을 위한 도전들”,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197-208.
- Aune, David 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8.
- Bauckham, R.,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 & T. Clark, 1993.
- Bauer, Walter, Frederick William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 K.,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JSNT Supplement Series 16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9.
- Bratcher, Robert G., *A Translator's Guide to the Revelation to John*, London; New York;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ies, 1984.
- Bratcher, Robert G. and Howard A. Hatton, *A Handbook on the Revelation to Joh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3.
-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6.
- Charles, R. H., *The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Vol. I., Edinburgh: T. & T. Clark, 1985.
- Fekkes, Jan,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4.
- Hagner, Donald A., *Matthew 14-28*, Word Biblical Commentary 33B, Dallas: Word Books, 1995.
- Hatch, Edwin and Henry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Vol. II, K-Ω, Athens: Beneficial Book Publishers, 1993.
- Kittel, Gerhar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65.
- Moulton, W. F., A. S. Geden and H. K. Moulton, *Concordance to the Greek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78.
- Mounce, Robert H.,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8.
- Moyise, Steve,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Rahlfs, Alfred, ed., *Septuaginta*, Vol. I & II, Stuttgart: Deutsche Biblestiftung Stuttgart, 1935.
- Smalley, Stephen S., *The Revelation to John*,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5.
- Towner, Philip, "Intertextuality: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0 (2007), 104-120.
- Wigram, George V., *The Englishm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Abstract>

## **A Study of Translation on ἐν θανάτῳ in Revelation 6:8**

Prof. Dal Lee  
(Hannam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show how ἐν θανάτῳ in Revelation 6:8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ἐν θανάτῳ in Revelation 6:8 is used in the context of enumerating the method of killing. However, it has been translated, especially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in the general sense of death. Such a translation cannot be differentiated from the personified agent of killing, ‘death’, found in the immediate context. By contrast, English Bible translations have continuously sought to find a translation which makes sense.

It is said that the word θάνατος has another meaning besides the general meaning of death. This special meaning of θάνατος belongs to the meaning field of ‘disease’. The thesis of this article is that the very special meaning of θάνατος can be applied to Revelation 6:8. The special meaning of θάνατος is found in two contexts: one is the dative form of θάνατος used with the verb ἀποκτείνειν; the other is the noun θάνατος used in the list of plagues.

Internal and external evidences can be given to prove the thesis. Internal evidence is that the similar usage of θάνατος with its related form is found in Revelation 2:23 and Revelation 18:8. This evidence is also explained in comparison with both the English and the Korean translations.

External evidences are given in two ways: Firstly, the word דָּבַר in BHS of which the meaning belongs to the meaning field of ‘disease’, is mostly translated into θάνατος in LXX. Secondly, the Old Testament sources (Lev 26:14-26; Eze 14:21, etc.) behind Revelation 6:8 also show the special meanings of ‘disease’. In addition, Luke 21:11, which is known to have affected the list of plagues in Revelation 6:8, uses the word θάνατος in the plague list with only the special meaning of ‘disease’. These intertexts of the Old Testament sources and the eschatological discourses of the synoptic Gospels are valuable in assessing the evidence.

Finally, a desirable Korean translation of ‘jonyeombeong’ (meaning epidemic/pestilence) is suggested at the end, after examining the relevance of English and Korean renderings of the word θάνατος in English and Korean Bible translations.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in any translation always matters.